

#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로”

###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범국민추천위 내외신 기자회견

### “희생적 봉사정신 국경 초월해 한 평생 실천”...서명운동 100만 명 돌파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 범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소록도의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야기가 알려지고, 2017년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노벨상 추천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후 100만 명을 돌파해 그 의미가 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로 Mary Jane Watkins 영국 상원의원과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의 격려사, 김황식 추천위원장의 사업 소개 그리고 국제간호협회(ICN) 등의 해외추천영상 상영, 기자들의 질문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신경림 회장(대한간호협회장)은 환영사에서 “두 분의 사랑, 희생과 봉사정신은 간호사가 갖춰야 할 덕목이고, 두 간호사가 그 모범을 보여 주었기에 국제간호협회(ICN)와 함께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업소개에 나선 김황식 추천위원장은 “두 간호사는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희생적인 봉사정신과 국경을 초

월한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20대 젊은 시절에 시작해 70세에 이르기까지 한 평생 사랑을 실천하고, 빈손으로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며 “100만인 이상 국민의 숭고한 뜻을 받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간호사의 해’로 지정했고, 현대 간호학을 확립한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로 노벨상 추천은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의 노벨평화상 추천은 전 인류애의 실현”이라며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자리를 함께한 송귀근 고흥군수는 “노벨상 추천에 함께 동참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고흥군에서는 명예 군민, 전라남도에서는 명예 도민, 법무부에서는 명예국민으로 지정했고,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등록문화재 지정, 매월 1,004달러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영화 제작·상영, 두 분의 뜻을 담은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건립, 전 군민 대상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 운동 등 선양사업을 소개하고 자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앞으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말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노벨위원회에 추천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2020년 10월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다.

고흥=한윤섭 기자

## 나주시문화공연에 관내 초등학교 활기



린이를 위한 멋진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클래식 그룹 ‘라운젤리’를 초청, 첼로·비올라·바이올린·클라리넷·플루트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숙한 음악 연주에 맞춰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등 공감과 화합의 무대로 꾸며졌다.

나주시는 지난 10월 한 달 간 관내 초등학교 4개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으로 구성된 ‘들썩 들썩 학교 가는 길’ 사업을 추진, 마래 끝나무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들썩 들썩 학교 가는 길’ 문화 공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클래식과 국악, 힙합과 댄스 장르를 접목시킨 색다른 문화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10월 8일 문평초, 30일 다도초에서는 ‘힙합과 댄스’라는 주제로 10대 청소년들의 대중문화 아이콘인 랩, 힙합댄스, 케이팝, 길스 힙합이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 공연이 열려, 학생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10월 11일 금천초에서는 ‘어

린이를 위한 우리춤, 우리 가락’ 국악 공연은 16일 산포초에서 진행됐다.

화려한 부채춤을 시작으로 해금독주 및 판소리, 국악동요와 판곡, 힙합과 댄스 장르를 접목시킨 색다른 문화공연이 연이어 펼쳐지며, 유치원생, 초등학생 150여명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공연이 미래의 주축인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곡성쌀 대책협의회, 비축매입품종 개선정

### 신동진·새청무로

곡성군이 2020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신동진과 새일미에서 신동진과 새청무로 개선정했다.

1일 군청 회의실에서 곡성군, 농협, 농업인 생산자 단체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곡성군 쌀 대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확정된 2020년 산 공공비축미곡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개선정하는 안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곡성군은 당초 신동진과 새일미를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으로 한 바 있다. 신동진 품종이 품질이나 상품성은 높지만 풍수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올해 유독 태풍이 잦아 농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새일미 품종의 경우 인지도나 상품성이 낮아 신동진 품종의 대체재로서 한계점을 보였

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품종을 신동진과 새청무로 개선정하게 된 것이다. 새청무 품종의 경우 비교적 인지도와 품질이 양호해 신동진 품종의 대체재로서 합격점을 받았다.

협의회에서는 지역농협 쌀값 등향,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일반벼와 피해벼 매입계획, 기타 당면한 농정현안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농협 측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쌀값 지지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곡성군 관계자는 “품위가 낮은 태풍 피해 벼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공공비축미곡에 앞서 피해벼 우선 매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담양군, 담양소방서와 소방 합동훈련

### 군 청사 화재 발생 가정 하 대피·인명구조 등 실시

담양군에서 화재 발생에 대한 초기대응 능력과 소방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담양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군청 주차장에서 공직자 100여 명, 소방관 6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군청사 소방 합동훈련’이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군 청사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직원들의 긴급대피와 자체소방대의 신속한 초기화재 진압, 인명구조,

응급복구 훈련, 심폐소생술(CPR)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를 화재장소로 유도하고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을 지원함과 동시에 화재진압 후 방호복 구대원들이 응급 복구하는 내용을 훈련해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군 관계자는 “실질적인 소방 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구례군 ‘천아트’ 작품 전시회 개최

### 수강생 32명 참여 160점 작품 전시

구례군은 지난달 3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광목 생활에 스며들다’ 주제로 작품 전시회를 개최



최하여 수강생들의 작품을 군민들에게 선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사업 중 천아트 교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김정옥 강사를 비롯한 수강생 32명이 참여하여 160점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등 300여 명이 관람하는 등 많은 군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천아트는 옷·가방·신발·커피·식탁보 등 광목 천 위에 야생화나 꽃그림을 페브릭 물감으로 그리는 과정으로 그림에 대한 지식이나 기초 실력 없이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생활미술로, 현재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천아트 교실을 개설하여 매주 수·목요일 2회에 걸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천아트 교실 수강생들은 지금은 기초 단계수준이나 향후 2년 수강을 한 후에는 천아트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고 한다. 한편 수강생들 중 6명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로 천아트 실력을 자랑하는 수강생들도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